할렐루야!

2024년 새해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막중한 은혜회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바로 깨달아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은혜회는 많이 침체 되어 있어 더 부담이 되지만 모든일 주님이 함께해 주실줄 믿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혜미아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은혜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구촌 교회의 모든 사역자 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